

의정소식

U L S A N B U K - G U C O U N C I L N E W S L E T T E R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CONTENTS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 04 발간사
- 05 의원현황 및 정수
- 06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7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 08 주요의정활동
제180회 임시회
제181회 임시회
제182회 제1차 정례회
- 11 2019년도 상반기 의정연구활동
- 14 주요 안건처리 현황
- 19 현장 속으로
- 25 결의안,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 40 2019년 상반기 포토의정



표지설명 | 열린 의회, 울산 북구의회 본회의장

- 발행일 | 2019년 상반기, 제22호
 - 발행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 편집인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장
 - 발행처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 전화 | 052-241-8973
 - 홈페이지 | <http://council.bukgu.ulsan.kr>
-



발간사



1년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 실현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섬김의 자세로 구민 곁에서 선진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의장 이주언입니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민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제7대 북구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젊은 패기와 남다른 관심 및 열정으로 주민을 위해 쉽 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의원 대다수가 자치단체 의정 경험은 없지만 전문성과 참신성을 겸비한 신진 의원들로 구성돼 소통과 협치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힘차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굼직한 사안들에 대한 협의와 공동 대응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 모두가 의욕적으로 구정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가 처한 수많은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주민 여러분의 관심은 물론,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며, 특히 각자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신뢰, 배려했던 상황 관리가 초석이 됐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현안에 대한 대치국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상호간의 대화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설득과 수용의 양보정신이 발현된다면 아무리 경색된 국면이라도 능히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의회의 주인은 바로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 실현을 이끌어 내고, 희망을 제시하면서 모두가 공존 가능한 정치를 구상해 실전의 장에서 펼칠 것입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섬김의 자세로 항상 구민 곁에 위치하면서 구민의 진정한 뜻을 정확히 판단해 앞서 가는 선진 의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신뢰로 북구의회를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주 언

제7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장



성 명 이 주 언
연락처 010-9173-4432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든든한 의정활동을 펼쳐 기분 좋은 결과로
보답하는 북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부의장



성 명 백 현 조
연락처 010-3801-8364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늘 그랬듯이 이웃 같은 구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성 명 임 채 오
연락처 010-4844-5405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구민이 최고',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의원



성 명 박 상 복
연락처 010-8630-4918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주민의 편익이
향상하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의원



성 명 정 외 경
연락처 010-6625-7725
선거구 농소2·3동

초심, 열심, 지심으로 더 많은 행복을 만드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의원



성 명 이 정 민
연락처 010-3123-3387
선거구 농소2·3동

주민에게 다가가고, 주민에게 사랑받는
북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원



성 명 임 수 필
연락처 010-6227-0049
선거구 농소2·3동

노동자 서민의 직접 참여정치가 희망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의원



성 명 이 진 복
연락처 010-4228-8986
선거구 비례대표

북구민의 이익을 지키며, 겸손하고 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의원정수

계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8	2	3	2	1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8. 7. 1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18. 7. 1. ~ 2022. 6. 30.



□ 의회 조직



2019년 상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회기운영 현황(2019. 1. 1. ~ 6. 30.)

구 분	계		임 시 회		정 령 회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2019년 상반기	3	41	2	26	1	15

안건처리 현황

회 수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 (승인)	결의안 (건의안)	보고	질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180회 (2019.2.18.~2.28.)	11	15	0	0	3	1	2	1	0	3	5
제181회 (2019.4.12.~4.26.)	15	26	2	0	11	2	1	0	1	2	7
제182회 (2019.6.10.~6.24.)	15	27	1	1	15	1	0	0	1	2	6
합 계	41	68	3	1	29	4	3	1	2	7	1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80회 || 임시회 2019. 2. 18. ~ 2. 28 (11일간)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가 2월 18일 오전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주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이동권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주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농소외동간 국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과 21만 북구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북구의회는 같은달 28일까지 11일간 이어진 제180회 임시회를 통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제9차 본회의에서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 및 고현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주언 의장은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에서 “송정역에서 직선거리 10km 이내에 약 45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한창 개발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10만여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송정역까지 광역철도가 반드시 연장 운행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연장 운행을 촉구했다.

정외경 의원은 고현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광복회 총사령을 역임한 고현 박상진 의사는 광복회를 조직하고 조국의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서훈등급은 3등급에 머물렀다”면서 “올바른 역사적 평가 및 조국독립에 기여한 공헌과 공적을 고려해 서훈등급을 반드시 상향해야 한다”며 상훈법 개정을 촉구했다.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81회 || 임시회 2019. 4. 12. ~ 4. 26. (15일간)

울산 북구의회가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제181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했다.

북구청은 당초예산 보다 415억328만원 증액한 총 3천555억8천504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북구의회에 제출했고, 폐회일인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의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했다"며 "사전설명이 부족하면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과,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도 심의,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이주언 의장이 발의한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구의회는 폐원 하루 전인 25일에는 현장방문활동으로 (가칭)송정역,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82회 || 제1차 정례회 2019. 6. 10. ~ 6. 24. (15일간)

‘제182회 울산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10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15일간 열렸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 조례안과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했으며,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 의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건도 다뤘다.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의의견서에서 “세입 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했는지 여부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고 말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은 ‘참여와 소통, 1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앞으로도 22만 북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주민을 최고로 생각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의정 활동을 하도록 힘 기울 이자”고 말했다

박상복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오페수 유입에 따른 모내기 피해농가 보상을 촉구한다’를 주제로 발언하면서 “지난 5월 농소1동과 송정동 농가의 모판 7천판 이상에서 다 자란 모가 마르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오페수 유입 문제인지, 질병 피해인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상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만들기를 위한 간담회

북구청, 교육청, 주민이 함께하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주관 북구의회 '의정연구회'

일시 2019년 4월 11일

장소 북구청 5층 다목적실



북구 의정연구회, 서로나눔교육지구 관련 간담회 2019. 4. 11.

‘울산북구의회 의정연구회’가 4월 11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북구의원과 주민, 울산시교육청, 북구청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만들기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학생 교육에 활용, 공교육 혁신을 이끌어내려는 울산시교육청의 울산형 혁신 교육지구인 ‘서로나눔교육지구’를 북구지역에 지정되도록 하는 기반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서로나눔교육지구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타 시도 혁신 교육지구 현황과 운영 사례, 서로나눔교육지구 구축 순서를 안내했다

지역 참여 교육사업 예시를 통해 마을방과후, 마을돌봄, 체험중심 수업 지원, 마을 속 진로탐색 등을 소개한 뒤 사업 추진 과제와 협력사항도 전달했다.

북구의회 의정연구회 임수필 의원은 “서로나눔 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의 협력을 이끌어내 마을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을 토대로 한 교육을 진행해 애항심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 역량도 강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대책

주관 : 희망북구의정포럼

장소 : 5층 다목적실



희망북구의정포럼, 저출산 대책 포럼 개최 2019. 6. 4.

울산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희망북구의정포럼’이 6월 4일 북구청 5층 다목적실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대책’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사)한자녀더갓기운동연합 울산본부 주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육아서포터즈 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박형태 정훈평생교육원장이 ‘2019 저출산과 고령화 이해교육’을, 박윤옥 (사)한자녀더갓기운동연합 대표(전 국회의원)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정민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녀더갓기운동연합 울산본부와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은 “참가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해 대응 방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의정포럼,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안 모색 2019. 6. 24.

울산 북구의회가 지역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북구의회 의정포럼은 6월 24일 북구청 3층 상황실에서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 보고 및 방향 제안을 위한 노동자 건강지원사업 관련 정책세미나로 '2019년 제1차 근로자 건강지원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건강지원사업에 대한 북구지역 모델 및 계획을 제시하고 안전보건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역할을 정립해 안정적인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지원 북구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이주언 의장과 임채오 운영위원장, 정외경, 임수필, 이진복 의원 등 북구의회 의원들과 근로자 건강지원 네트워크 위원 등 총 200여명이 자리해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 관련 주제 발표 △근로자 건강지원 사업 관련 논의 △조례 제정 및 전담 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등에 나섰다.

이주언 북구 의장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한 노동능력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경제일자리과, 보건소와 힘을 합쳐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80회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간 교류강화,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을 하고자 함.

●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강동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결을 얻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문화·관광도시 조성,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등 주민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담당을 신설하고,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인근 지자체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로 인하여 우리 구에 무분별한 대형 신규축사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지정되어 있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정 및 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고현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정외경 의원]

* 광복회 총사령을 역임한 고현 박상진 의사에 대하여 반드시 상향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상훈법」에서는 서훈 등급의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현 박상진 의사의 서훈 등급 상향과 서훈 등급 변경을 위한 「상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자 함.

●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이주언 의원]

* 부산~울산 광역전철이 내년에 개통예정인데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연결 예정이며, 송정역이 향후 유일한 북구의 역사가 되며, 북구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태화강역까지 거리가 멀고, 주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장래 이용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이므로 송정역까지 연장이 필요하여,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제181회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달천철장 전시관 조성계획에 대하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이주연 의원]

*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백현조 의원]

* 본 조례 중 「아동복지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아동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동의 정의와 아동의회의 구성·임기·해촉에 관련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임채오 의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개정(2018. 1. 9.) 사항을 반영하여 북구의회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박상복 의원]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9431호, 2019. 3. 25. 시행)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해 설치한 생활문화센터가 2019. 8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19년 7월 개소 예정인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해당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중산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구에 처음 개관하는 생활문화 활동공간으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에 맞게 생활문화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에서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년간 연장됨에 따라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정외경 의원]

*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 경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 ▶ 원안가결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행정 서비스 향상을 통한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지방공단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해야 하므로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

▶ 부결 [임수필 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확인하고, 경영 능력 및 자질 등 검증에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을 촉구 하고자 함.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정외경 의원 외2]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요구 확대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2019. 4. 29.자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 간 단체협약 사항으로 학습휴가 명칭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기재직휴가로 변경하며, 직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거주 1개월 미만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을 통합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꽃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특수규격 종량제 시행(2019. 7. 1.)에 따라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공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하는 단서 조항이 시행(2019. 1. 1.)됨에 따라 해당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사업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0. 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 받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9년 기준인력 범위 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개인소득세 업무 등 국가시책 추진 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사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동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백현조 의원]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등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 원안가결

* 기업의 효율적 투자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고도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비 및 경관사업 추진과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의회



재활용품 수거,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도

울산 북구의회 의원들이 3월 4일 새벽 화봉동 일원에서 환경미화원과 함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활동에도 직접 나섰다.

이번 활동은 북구의회가 매분기 추진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하나다. 의원들이 직접 재활용품 수거 활동을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체험하고 어려움을 공감했다.

의원들은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주언 의장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새벽마다 애쓰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북구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철 활용' 대안동 쇠부리터 발굴현장 시찰

울산 북구의회가 대안동 쇠부리터 발굴조사 현장을 찾아 쇠부리기술 복원에 대해 강조했다.

이주언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7일 북구 대안동 산 177 일원 '깊은 골'로 불리는 동대산 쇠부리터를 찾았다.

의원들은 달천철장의 토철을 이용해 쇠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더욱 의미 있다고 평가 받는 이곳 쇠부리터 현장 곳곳을 직접 살펴봤다.

의원들은 이들 시설과 주변 일대를 둘러보면서 이번 발굴조사가 울산쇠부리기술 복원과 쇠부리콘텐츠 개발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언 의장은 “대안동 쇠부리터는 삼한시대 이래 영남지역 최대 철 생산지였던 달천철장의 토철을 이용해 쇠를 생산했던 것으로 추정돼 의미가 더 크다”며 “고대 쇠부리기술과 조선 후기 쇠부리기술인 ‘토철제련법’ 이 두 가지 기술문화의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칭)송정역 건립현장 등 방문 현안 점검

울산 북구의회가 제181회 임시회 14일차인 4월 25일 (가칭)송정역사 등 관내 주요시설 건립현장에서 현안을 파악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송정역 현장에서는 2021년 3월 개통 예정으로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만 운행 예정인 광역전철 노선을 송정역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졌다.

의원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북구 창평동 산46-10번지 일원에 연면적 1천341㎡ 규모로 조성 중인 송정역 건립공사 현장에서 건립 현황을 보고 받았다.

부지 곳곳을 둘러본 의원들은 광역전철 송정역 연장 운행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송정역사 확장 가능성 및 역사 주차면수 확대 등에 대해 피력했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화봉동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가 추진 중인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을 찾았다.

이 공영주차장은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3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의원들은 이날 호계동의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현장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반려동물 교육실과 입양 봉사실, 매개 치료실, 전시관, 야외운동장 및 산책로 등으로 구성할 이곳 센터는 지난해 2월 착공했다.



가정의 달 맞아 7765부대 장병 위문

울산 북구의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북구지역에서 근무 중인 군 장병 위문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5월 14일 북구 신현동에 위치한 제7765부대 2대대(대대장 노진철)를 찾아 북구 해안 경계 최전선에서 밤낮 없이 초소 근무 중인 이곳 장병들을 격려하고, 부대시설도 견학했다.

의원들은 7765부대 지휘통제실에서 이 부대 작전과장으로부터 부대 현황을 소개 받은 뒤 지휘관실에서 노진철 대대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어 국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간식도 전달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방호태세 확보'를 주문하고, 제대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복무해달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이주언 의장은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국가를 위해 흔들림 없이 복무 중인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위문을 기획했다”면서 “국군 장병이 있기에 우리 북구와 울산시, 나아가 대한민국이 무탈하고 평안할 수 있다. 지역 해안 경계를 책임지는 7765부대 2대대 장병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촌·진장지구서 범죄예방 자율방범활동

북구의회가 5월 21일 밤 명촌·진장지구에서 자율방범순찰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의원들은 이날 명촌·진장자율방범대(대장 육원정) 대원들과 함께 지구 곳곳을 순찰하면서 범죄예방 활동을 펼쳤다.

순찰활동과 별도로 명촌·진장자율방범대 대원들과 간담회도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백현조 부의장은 “각자 생업에 바쁠 텐데도 주민 안전을 위해 현장 봉사활동을 펼치는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함께 방범활동에 나섰다”면서 “자율방범대의 애로사항 및 명촌·진장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아지원센터·신천공원 조성 현장 점검

울산 북구의회의원들이 '제182회 제1차 정례회' 현장방문활동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신천공원 건립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의원들은 6월 21일 오전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한 후 곧바로 현장방문활동에 나섰다.

먼저 북구 연암동 1129-4, 1131-3 일원에 부지면적 1천500㎡, 연면적 3천㎡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북구지역 영유아·부모·보육교직원 등에게 출산과 양육, 보육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성 중인 시설이다. 내년 3월 개관이 목표다.

의원들은 이어 신천동 576-1번지 일원(국민체육센터 옆)에 9만7천669㎡ 규모로 조성 중인 신천공원을 찾아 일대를 둘러봤다.

이주언 북구의장은 “목표대로 차질 없이 조성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도 적극 대응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

■ 제안이유

가. 부산~울산 광역전철이 내년에 개통예정인데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연결 예정임.

나. 송정역이 향후 유일한 북구의 역사가 되며, 북구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태화강역까지 거리가 멀고, 주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장래 이용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이므로 송정역까지 연장이 필요함.

다. 이에, 부산~울산 광역전철을 태화강역에서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주 문

우리 북구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울산 송정역을 중심으로 울산 동부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하여 지역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준공예정인 중앙선 복선전철을 연계한 울산 송정역에 ITX노선 신설 건의를 하여, 16년 2월, 울산시 2040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되었고, 16년 8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하여 ITX노선을 운영하기로 합의되었다.

동해남부선 철도에 송정역을 국가기간 철도망과 광역철도를 연계하여 철도이용자들의 이동권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효율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송정역일원에 역세권을 개발하여 울산 동부권의 신 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20년 개통예정인 청량리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운행되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연계되어야 하는 송정역의 광역철도 운행의 필요성은 다시 제론할 여지조차 없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공사가 내년 초 완공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부산~울산 광역전철이 도입 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만 운행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북구의회는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의 필요성은

첫째, 철도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호계역 1일 실제이용객은 2,000명이 넘었으며, 송정역에서 직선거리 10km내(중·남·동·북구)에 약 45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또한 현재 한창 개발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10만 여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철도이용객들의 수요를 감안할 때 반드시, 송정역까지 광역철도가 연장 운행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둘째, 송정역은 오토밸리로, 옥동~농소간 도로, 국도7호선, 외곽순환도로 등과 연계되어 사통팔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인근에 구축된 교통인프라와 연계된다면 시너지효과는 극대화 될 것입니다.

셋째,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규모 예산수반 없이 철도운영시스템 변경만으로 가능한 사항이므로 지역주민 철도이용 편의성과 수혜권역 확대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송정역까지 광역전철을 연장 운행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 북구지역의 하나 뿐인 역사로서 부산~울산 광역전철을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태화강역에서 송정역까지 광역전철 노선 연장 운행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윤종오 전)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 수용불가 사유, 월성 핵 폐기물 임시저장소 관련하여

Q. 주민 청원 수용불가 사유를 보면 법 조항의 나열만 되어 있고 이 법 조항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설 없이 ‘동 채권은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지어 졌습니다. 이 법 조항들의 해석이 어떻게 수용불가 결정으로 귀결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에 대한 관리의 책임 또한 구청장에게 있음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청원 채택 의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의결내용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한 바 2019년 1월 9일 의회에 보고한 청원 처리결과와 나열한 법조항 및 대법원 판결내용과 그 외 관련되는 제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환경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본 채권을 면제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또한 관련되는 제반 법령에 따른 행정환경과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Q. 북구청장은 의회의 의결에 대해 수용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장은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용불가’ 결정은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회신내용에는 ‘지방의회의 청원 채택 의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의결내용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첫 번째 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되는 제반 법령 및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Q. 면담자리에서는 약속을 하고, 돌아서면 약속을 어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현재 진행되는 천막농성을 해결하기 위한 북구청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저는 그동안 구상금 면제에 대하여 읍들의 연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읍들의 연대의 요구에 고문변호사는 구청의 법령해석을 도와주는 역할이므로 제가 강제할 수 없음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고문변호사들을 설득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고문변호사를 찾아가 설득해 보았지만 ‘청원 수용불가에 대한 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적절차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법리해석토론회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공개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나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고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향후 진술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고문변호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등이 예상되어 개별적 자문결과와 내용의 공개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는 것은 구청의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사항으로 그 자체로써 북구청의 의사결정이 될 수 없는 바 북구청의 의사결정은 모든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 추가로 월성 핵 폐기물 임시저장소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북구 주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재검토 준비단이 운영 될 때에 우리 구에서는 재검토 준비단 회의에 참석하여 북구가 의견수렴 범위에 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있어 월성원전 이해당사자인 우리구가 배제 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지

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재검토위원회의 동향을 주시하여 재검토위원회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있어 우리 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재검토준비단, 원전소재 지자체인 경주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말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을 수차례 방문하여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 및 지원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의 지원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 질문의원 : 박상복 의원

> 질문일시 : 2019. 2. 1.

> 질문요지 : 병충해 방제작업시 안전대책 수립방안



병충해 방제작업시 안전대책 수립방안

Q.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경위?

A. 지난 1월 19일 11시경 매곡동 산23번지에서 (주)O 소속의 작업자 2명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직경 50cm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사고자(52세, 남)가 기계톱으로 벌목 도중 벌목한 나뭇가지가 옆에 있는 다른 나무의 간섭을 받아 경사지 쪽으로 넘어지지 않고, 벌목 나무 하단부가 땅에 떨어지고 경사지를 타고 미끄러지면서 사고자 방향으로 넘어와 사고자의 등을 가격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119로 소방서에 신고하여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급경사 및 험준지인 관계로 인력 후송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급소방 헬기를 요청하여 울산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7번 척추골절에 의한 내부 과다출혈로 밝혀졌습니다.

Q. 안전교육 및 매뉴얼(안전수칙, 개인보호 장비 등) 사용 등 안전 세부지침 활용 여부?

A. 우리구 7개 사업지구별 감리사는 최소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공정을 비롯한 안전장구 착용 여부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제작한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을 이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월요일 저희 구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Q. 산림청, 임업훈련원 등과 연계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추진계획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은?

A. 구 소속 산림사업 담당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는 매년 임업훈련원 등에서 직무교육과 병행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시공사 소속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교육 월 2시간과 안전관리자로부터 매일 작업전 안전교육 받은 후 시공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업훈련원 등 안전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시공사 작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구에서 지급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항목 중 안전보건전문교육 기관에 의무적으로 작업자 안전교육

을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매주 한차례 감리사 보고서 제출을 2회로 변경하여 더욱 내실 있는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우리구 자체적으로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수첩」을 제작·배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 할 예정입니다.

서면질문

> 질문의원 : 박상복 의원

> 질문일시 : 2019. 2. 21.

> 질문요지 : 강동오토캠핑장 멸종위기식물 보호 방안



강동오토캠핑장 멸종위기식물 보호 방안

Q. 강동오토캠핑장의 사업축소 및 공사 시 침출수 영향 및 담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행사항은?

A. 캠핑장 조성범위 재검토와 캠핑장 조성 시 갯봄맞이꽃 서식지에 공급되는 담수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시 보완 요구한 사항으로, 수리·수문분야 전문가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조성범위와 보존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Q. 갯봄맞이꽃 서식지에 대한 보호방안 및 대책은?

A. 현재 서식지 주변에 펜스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낚시객이 갯바위로 진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캠핑장 조성 시 강동누리길 전망대에서 갯바위로 통행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고 누리길과 연결되는 구간에 데크와 난간을 추가 설치하여 이용객의 동선을 제한하고자 하며, 캠핑장 조성 후 CCTV설치와 캠핑장 관리인을 통해 서식지 출입과 훼손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캠핑장 내 안내판 설치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서식지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Q. 서식지의 보호대책에 따라 강동오토캠핑장의 공사기간 지연 및 추가 예산 투입규모는?

A. 서식지 보호대책에 따라 별도로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없으나, 낙동강환경유역청과의 협의기간이 상당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기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재개 후 절대공기인 8개월 이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부실보고서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기관관리 및 향후 환경영향평가 부실 검증 방안은?

A. 캠핑장 조성을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018.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여 2018.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갯봄맞이꽃 서식지가 사업지와 떨어져 있고 중간에 강동누리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장조사 시점은 갯봄맞이꽃 개화시기 이전으로 서식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이나 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역새군락지로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또는 부실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를 고발 등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 용역수행기관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유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후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문제는 일정 정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향후 관내 사업 추진 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 관련 질의

Q.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명촌초, 진장중 이외의 학교용지가 용도 폐지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계획상 체비지로서 공공용지로 조성된 학교부지가 타인에게 넘어간 경위는?

A.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진장초교 폐지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12. 10. 19 : 지구단위계획 변경(진장초 폐지)입안 제안(○○토건)
- '12. 10. 25 : 지구단위계획 변경(진장초 폐지)입안 제안 반려(북구청)
- '12. 11. 22 : 반려 건에 대한 소(2012구합 2799호) 제기(○○토건)
- '13. 5. 30 : 원고(○○토건) 승소 판결
- ※ 원고에게 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입안제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13. 11. 22 : “입안제안서” 시 도시개발과로 전달
- '15. 10. 29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진장초교 폐지)

위의 과정을 거쳐 진장초교는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부지가 타인에게 넘어간 경위는 사실관계 확인중에 있습니다.

Q.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데, 평창리비에르아파트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체비지 대장상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다. 그렇다면 체비지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체비지 대장상 명의 변경의 구체적인 절차와 그 관계 규정은?

A. 보류지등의 처분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칙에 따라 체비지는 매입신청, 가격결정, 매매결정, 대금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장이 체비지 대장 명의변경 절차 이행

하고, 조합 정관 제47조(소유권 이동신고)에 따라 소유권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장에 신고해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조합장이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Q. 평창리비에르아파트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는 등 명백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북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A. 2017. 6. 30. 체비지 대장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하였으나 판결로 확정된 사안임과 동시에 판결 이행에 관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 결과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간담회, 체비지 대장 명의 변경 촉구(7차) 등 여러 가지 경로로 행정지도 하였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분양자와 조합간의 명의 변경 관련 판결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상기 국민권익위원회 “각하”와 같이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사업계획상 앞으로 환지처분 등으로 사업부지내 토지들이 대지로의 등기가 가능한지? 그 판단의 근거는?

A.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65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후 환지처분에 따라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북구체육회 사무국장 선임절차 및 조직 안정화 방안

Q. 체육회 신입사무국장 선임절차(기간, 방법 등)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A. 사무국장 임명절차는 「북구체육회 규약」제49조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으며, 임기는 임명 시부터 2020년 2월 총회까지입니다. 북구체육회에서는 적정인물을 발굴하여 결격사유 조회 후 이사회를 거쳐, 임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확인하였습니다.

Q. 체육회 사무국장의 업무전문성 포함 자격 기준은?

A. 사무국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의 특별한 자격 기준이 없으나, 「북구체육회 규약」제29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동규약 제49조에 따라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Q. 생활지도자의 근태문제로 촉발된 직원간의 불화 사항을 개선 포함한 조직 활성화 및 안정화 방안?

A.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북구체육회에서는 직원 및 지도자에 대한 업무 연찬으로 업무 전문성을 높여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며, 수시로 면담과 수업 현장을 점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상호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Q. 최근 북구체육회 관리범위인 쇠부리체육센터의 직원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경위, 처리방안, 사후관리, 재발방지 대책은?

A. ○ 사건경위

- 4.13.(토), 쇠부리체육센터 사무실에서 A직원은 업무관련 대장 비치와 관련하여 B직원과 언쟁이 있었으며, 언쟁이 커져 C직원이 제지 하였으나, A직원과 B직원간 폭행 사건이 발생함.

- 4. 14.(일) : B직원은 갈비뼈 골절, 타박상 등으로 병원 입원

- 4. 16.(화) : A직원 사직서 제출

- 4. 22.(월) :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운영 철저 공문 발송

○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 쇠부리체육센터에서는 매월 강사 간담회 및 직원 회의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간담회(회의)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며,

-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를 교육하여 직원 윤리의식을 확립시켜 해당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사건 발생전 다양한 신호를 통해 직원간 화합 문제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도 인지를 못한 사유는?

A. 해당 사건은 업무의 연관성이 높지 않으며, 평소 직원간 갈등 없이 잘 지내는 사이로, 사건 당시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사전에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회



강동, 외곽순환도로 그 이 후를 준비하자.

정부는 지난 달 2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국도31호 강동 IC까지 연결하는 동서축 교통망인 외곽순환도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시작은 2011년 6월 국토교통부 제2차 도로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되면서 부터입니다. 그 결실은 이상헌 국회의원과 여기 계신 이동권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1조원이 넘는 대형 사업의 첫발이 놓여 졌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 구민을 대신해 구청장님의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외곽순환도로는 해양관광 단지를 개발하고 각종 재해의 피난로 확보, 울산 시내 도심으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 등의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부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2026년 계획 일정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 이후의 해양관광단지인 강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가 확충되고 이동시간이 단축되면 뜻하지 않는 도시경제학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주민은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 더 큰 대도시로 쇼핑,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동합니다. 자칫 잘못하다 강동이 베드타운 정도의 작은 주거지 역할만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넓게 뻗은 도로가 뜻하지 않게 사람과 돈이 도시로 모이게 하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대도시와 중소 거주지간의 불평등은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와 철도교통이 자본과 사람 역시 대도시 집중화를 시켜 지방분권화에 반대로 갈 우려 역시 생길 수 있습니다. 강동의 삶의 질을 높이 고자 했던 것이 예기치 못한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양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천연 자원, 기후조건, 역사적 유물 등의 하드웨어적인 것 외 관광자원에 스토리를 가미해 강동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점 하나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어 스토리텔링 상품화에 성공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호텔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호텔은 조선시대 때 중국의 사신을 맞이 한 태평관이 근처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현대에는 상공회의소가 소재해 있어 돈과 행운이 모이는 곳이라며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동양사상인 풍수지리를 스토리텔링화 해서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완벽

한 명당에서 즐기는 휴식과 행운이라는 컨셉으로 새해 그 호텔에서 하룻밤을 숙박하면 만사형통의 운이 들어온다고 상품화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21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강동 관광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의 예와 같이 잘 포장된 핵심컨텐츠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를 포함한 전문기관과 함께 충분한 자료연구, 문화원형 발굴, 정확한 소재 등을 찾아 강동의 핵심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광개발을 당부 드립니다. 전해 내려오는 설화, 역사적인 사실 등에 근거하거나 연계한 스토리를 만들어 강동관광지에 접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 재방문을 유도하고, 강동의 관광이미지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체험관, 정자활어직매장, 뽀로로테마파크 등 이전 집행부에서 시작한 사업의 열매를 받아만 갈 것이 아니라 이젠 민선6대에서 외곽순환도로 건설 이후의 강동을 제대로 고민해야 합니다.

백화점식 관광지 나열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컨텐츠를 설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강동에는 1만 5천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혼주거단지임에도 아이가 아프면 찾아가 수 있는 병원조차 없으며, 학원 등의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강동의 개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경제에선 인프라 투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강동상품이라는 곳에 소비자의 꿈과 감성에 호소하는 스토리 마케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외곽순환도로가 외부 대도시로 나가는 유출의 도로가 아니라 강동으로 유입되는 도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주민 면제 청원 다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를 아십니까?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는 윤종오 전 구청장의 구상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울산지역 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단체들이 함께 발족한 연대 단체의 이름입니다.

‘乙’들의 연대가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제2, 제3의 악자들의 연대가 희망을 갖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탄압과 왜곡과 무시가 있더라도 ‘乙’들의 연대는 촛불의 정신을 갖고 거짓 촛불 세력의 진모들을 밝혀 줄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2019년 대한민국 자영업이 위기라고 모두들 입을 모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일까요? 유통대기업들이 26년간 수백의 대형마트, 수천의 기업형슈퍼마켓, 수만의 편의점, 각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대책 없이 뛰어 들어 지역 상권을 잠식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은 자영업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영업자가 60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는 가운데 자기 고용 노동자인 영세 자영업자가 400만명에 이르렀고 비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쇼핑몰로 대자본이 진출하고, 인터넷 쇼핑몰로 인해 자영업의 위기가 더 심해진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2011년 당시 당시 전국 15만명 당 1개 꼴이던 전국 상황과 비교하면 울산시 북구는 코스트코까지 입점한다면 3만 5천명 당 1개소가 되는 대형마트와 밀포화 지역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윤종오 전 구청장은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러한 윤종오 전 구청장의 결단은 2019년 대한민국 자영업 대란이라는 현실을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해 정당했던 소신행정이었음은 분명하며,

그 때 예방책을 잘 마련했더라면 현재의 자영업자들의 힘겨움은 덜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 지역상권과 중소기업들의 삶을 대변하는 공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8년동안 민, 형사소송이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대법원에서의 4억 6백만원의 구상금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의 유일한 재산인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압류하여 경매절차에 넘겨버렸고, 통장마저 거래 중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의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구상금 면제’를 위해 힘을 모았고,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 이동권 북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가결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수용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옹졸한 수용거부입니다.

어쩌면 북구청에서 감당하고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었던 주민들을 모셔놓고 양측 입장과 법적 해석의 견해를 듣는 토론회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였을 것입니다. 법을 운운하지만 2011년 12월 23일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과 관련 도의회 면제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송비용 면제 및 기 납부한 소송비용 반환을 완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결권을 갖고 파업을 할 때 권력과 자본은 만들어 놓은 법으로 옥죄어 옵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고 어마마한 손해배상 청구를 돈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청구해 왔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법을 이용한 사법적폐들을 보십시오.

KTX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철도노동자들이,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모두 그렇게 끊임없는 절망의 구렁이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가혹한 판결 또한 전임 구청장과 전임 정권이 법이란 잣대로 가난한 진보정치인을 옥죄어 놓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미비한 법체계에 서 중소영세상인을 대변하고자 했던 것이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어야 했던 말입니까? 8년 전 대형마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소신행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렁에 빠졌는데도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 정치의 계산법으로, 혹시나 1%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좌고우면하는 행정으로 과연 풀뿌리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혹한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을’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고 촛불로써 국민 직접정치의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을’들의 발걸음을 가로막거나 늦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권불십년이 못 가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복구청장이나 복구의회는 알아야 합니다. 자승자박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측은지심을 느껴야 할 때 물러서고, 분노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선출직들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움아 묶어서는 아니 됩니다. 복구의회가 주민의 뜻과 청원을 수용하고 결정한 노력을 무시 당할 때 분노할 줄 아는 복구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의 해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동권 구청장에게 결단을 통해 주민들의 구상금 면제 청원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이진복 의원
- > 발언일시 : 제180회 임시회(2019. 2. 18.)
- > 발언요지 : 평화경협으로 북구 발전을 이루자.



평화경협으로 북구 발전을 이루자.

헌법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 70년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으나 남북한의 관계는 각각의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겨졌습니다.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올해 다가 올 2차 북미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통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반도에는 완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정권의 교체로 또는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남과 북의 평화는 멈춰야 했고 남북관계는 한없이 퇴보되는 과오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권의 의지에 의해 대북정책은 급변했으며, 각 지자체 마다 통일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울산 북구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치적인 상황변동에 의해 사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기금이 되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남

북정세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었고 북한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만연했습니다. 최근에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발설하고 역사를 폄해하고 왜곡하는 발언으로 한반도 평화의 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발언은 역사가 됩니다. 통일된 미래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했는가 역사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70여년간 국가의 정치적인 이념과 대립으로 인한 적대감 해소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이주언의장이 발의한 평화통일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 통일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남북통일에 대한 친밀도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빠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통일 인프라가 수도권에 있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울산 북구지역만의 특

성화된 다양한 경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통일에 지자체간의 교류 협력은 행정, 문화 차원에서 효율적인 국민적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민간을 연결시키고 이들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환영하고 북한의 새로운 선택을 지지하고 북한의 변화를 견인함으로써 북한 또한 스스로의 고립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는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울산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전통 주력산업을 혁신하겠다 함은 울산의 경제발전에 총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농소~외동간 국도 확장 공사는 북구에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어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울산이 남북경협의 본격화와 물동량의 수송에 대비한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동해안 경제벨트 구축을 위해서는 인프라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울산 농소~경주외동 국도 등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와 함께 진입도 연계할 것에 대해 염두를 두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북구도 북방경제협력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미리 준비를 착착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박상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81회 임시회(2019. 4. 12.)

> 발언요지 : 호국사찰 신흥사의 삼존좌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하자.



호국사찰 신흥사의 삼존좌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하자.

2015년 8월 북한이 지뢰와 포격으로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도발했을 때 높은 걸기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려하던 20대 청년들을 기억하십니까? 인터넷과 SNS에는 군(軍) 전역 이후 다시 꺼내 놓았다는 군복·군화 사진을 올리고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도발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글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 국가를 위해서 전역을 미루겠다는 자발적 호국외지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의 걸기를 일부 정치인들은 곡해하나, 청년들의 국가를 위한 진정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울산 북구에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호국의지가 불길처럼 일어난 장소가 있었습니다. 울산 북구의 자랑스런 호국사찰 신흥사입니다.

신흥사는 통도사의 말사로 신라 선덕여왕 4년인 635년 처음 건립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부터 승

병 100명 이상이 머물면서 무술을 닦았다고 하니, 호국사찰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흥사는 임진왜란 때 울산 지역에서 승군 동원 기록이 있는 유일한 사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병영을 중심으로 한 관군의 대응은 무력하여 병영성이 함락되었으며, 이후 지역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기박산성을 근거지로 의병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박산성과 가까운 곳에 있는 신흥사는 의병에 힘을 보탤 뿐만 아니라 의병과 관군에게 식량을 조달하기도 하고, 의병과 승병들 훈련 장소로도 제공한 기록이 있는 울산 북구의 자랑스런 사찰입니다. 정유재란 때 왜군이 후퇴하면서 전소시켰지만 1646년 절을 다시 세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곳 신흥사에는 석조 아미타여래 삼존좌상이라는 불상이 존재합니다. 가운데 본존불상은 1649년 조각승 영색에 의해 제작됐고, 좌우 협시보살상은 이보다 늦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조각승에 의해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울산시는 이를 사료적 가치로 인정해 市 유형문화재로 지정관리 중이나,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신홍사의 석조 아미타여래 삼존불상을 울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신홍사 삼존불상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포함한 학술 연구 영역을 우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상에 대한 과학적 조사로 재질, 수법, 조성과정에 대한 명확화를 통해 역사적, 문화재적 의미를 재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화 함으로써 복구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복구는 신홍사가 포함된 관광지 8곳 대상으로 '관광지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의지를 가지고 관광산업을 육성 중입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복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홍사의 호국 사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찰음식, 자연경관, 무예수련 등과 연계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하여 체험형 관광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박산성, 달현재와 연계한 특화된 호국 문화재 코스 개발로 확장하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동권 구청장께서는 기박산성, 달현재와 함께 왜란 때 최초로 승병이 봉기한 신홍사를 아우르는 지역에 의병탐방로를 개설하여 우리 선조들의 얼과 기상이 담긴 훌륭한 복구의 문화자산 보존이 후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시에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의병 탐방로 개설을 위해 연구회나 학술 심포지엄 등에 문화자산에 대한 충분한 연구 예산을 배정하여 제대로 된 호국의 의미를 후손에게 설명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기박산성은 임진왜란 때 1,000여명의 의병을 주축으로 신홍사 승군까지 합진해 애국충절의 결의를 다진 곳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울산시 복구 문화원에서는 해마다 '기박산성의병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홍사는 임란 때 울산 지역 일대에 있었던 승병을 지휘했던 군사령부의 역할을 한 곳으로 호국정신의 용소인 곳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호국 코스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홍사 입구에는 일명 학자수로 불리는 400년이 넘는 회화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회화나무의 꽃이 피는 시기가 음력 7월 정도로 중국에서 과거 시험 중 진사를 치르는 무렵과 비슷하여 관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를 생각하는 용기와 지혜의 스토리가 있는 신홍사를 울산 복구의 정신적 명당으로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모든 확장을 위해서는 신홍사의 국가문화재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존경하는 21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최근 고등학생 및 대학생 사이에서 천안함 배치 달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천안함 배치는 '46+1'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북한과 싸우다 전사한 46명과 구조 활동 도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를 상징하는 이 숫자를 청년들이 가슴에 달고 북한의 도발과 이를 막다가 희생된 군인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청년들은 2년 연속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불참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추모하는 문화가 생활 속에 배어 있는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 모습이 부럽다 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호국문화를 부러워하는 대신 우리 청년과 후손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호국의 정신을 일깨우는 선물을 위해서라도 신홍사가 제대로 평가 받길 기대합니다. 특정 종교 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울산 복구의 품격 있는 문화재적 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으로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일 강원도 강한 바람으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여러 지역으로 불길이 옮겨붙어 짧은 시간 동안 초유의 산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의 산림 피해 규모는 잠정적으로 1757ha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화재에서 온 국민은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화재 진압과 복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피해 지역이 조속히 복구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원도 산불 이후 국가가 풀어야 할 과제 중 소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재난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입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22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였고 한 청원인은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쓰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방직 신분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찬성 의견이 78.7%입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 자립도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인력·장비에 큰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도 지역 차이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멈추어 달라는 청원이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산불은 큰 피해를 남겼지만, 소방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작전으로 하루 만에 큰 불길을 잡아 '최고의 진화 작전'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에서 5일 밤사이 동원된 소방차량은 872대, 소방공무원 3251명, 산림청 진화대원, 의용소방대원, 군인 시·군 공무원, 경찰 등 총 1만여 명이 산불 진화에 투입되었습니다. 강원도로 지원 가는 소방차 행렬은 '속초로 향하는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소방차를 빠르게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17년 6월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소방본부는 안전처 산하 조직에서 '소방청'으로 분리되면서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였으며, 이는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이번 고성 산불 진화 과정에서 보았듯이, 소방관들의 활약에 많은 국민이 격려와 지원을 보내고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인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등이 조속히 처리되어 대형 참사와 화재가 났을 때 안타깝게 숨지는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울산의 경우,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장비 부족보다는 소방차나 특수 소방차를 몰고 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소방펌프차량에 탑승이 4명~5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2명~3명의 소방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장비도 결국 사람이 있어야 활용 가능한데 한 번 출동하고 나면 2차 출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전이나 광주의 경우 소방공무원 2000여명에 비해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울산은 1000여명으로 그 절반 수준입니다. 울산은 소방인력 부족으로 지난주에 129명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대거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원계획이 2022년까지 잡혀있습니다. 실제 소방청 등을 제외한 소방 인력의 약 99%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으로, 매 화재 당시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소방관 투입 인원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복구는 등산객 실화나 소각 등에 의한 산불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산불감시원의 인화물질 소지 여부 확인에도 불구하고 거짓 대답 후 소지하고 산을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객들에게 인화 물질 보관함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등산객의 실화로 확산되는 대규모 재난성 산불을 줄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진화 대응처럼 복구도 신속한 진화작업이 될 수 있도록 산불재난대비 매뉴얼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전 모의 훈련이나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대응 시스템을 수시로 보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헬기 진화가 완료된 후 4차 혁명의 상징인 드론에 열 감지 카메라를 장착하여 공중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지휘본부에 잔불 상황을 전송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산불진화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화의 필요성,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 그리고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산불에

방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구에서도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훈련이나 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박상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82회 제1차 정례회(2019. 6. 24.)

> 발언요지 : 오폐수 유입에 따른 모내기 피해 보상을 촉구한다.



오폐수 유입에 따른 모내기 피해 보상을 촉구한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다가오는 내일은 북한의 침략에 의해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6.25전쟁 69주년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한 몸 바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추념 드립니다.

지난 5월 18일 농소1동 원지마을회관 근처 모가 말라가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단순 냉해 피해로만 여겼지만, 모판에서 하수구와 같은 냄새가 나고 모의 뿌리가 얹히지 못해서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를 발견 후 피와 땀으로 한 해 농사를 준비하던 농민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피해 논 옆쪽의 웅벽에서 생활하수가 새어 나오는 점을 근거로 피해농가는 오폐수의 유입에 따라 뿌리가 썩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판의 모가 다 자란 상태에서 농소1동 2가구, 송정동 1가구에서 7천판 이상의 모판이 피해를 본 만큼 집행부는 오폐수 유입에 따른 문제인지, 질병에 의한 피해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절실한 원인분석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모내기 피해를 경험하면서 피해 농민들의 감정이 격앙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신 농수산과와 건설과 공무원들께 피해 농가 및 지역주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소농협 육묘배양장, 울주군 등에 연락해 모판을 미리 확보하는 등 농민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농수산과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재차 드리는 바입니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 포함 2차례 김수호 과장님,

정연태 주무관님 및 관계자 25명이 직접 현장에서 썩은 모판을 제거,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격앙된 감정은 어느새 감사와 희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수시로 원인지점으로 추정되는 농업용수관로를 신속하게 리워크하여 문제 지점을 수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초 농업용수관로를 청소하는 등 오염되지 않은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업무 지원까지 하여 주신 점 역시 농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의 도움 및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 통장님의 격려와 지원까지 더해져 지난 6월 7일 피해 못자리 농가의 올해의 모심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젠 정확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한 농지피해에 대한 보상을 고민해야 합니다. 농민의 주장대로 오폐수에 따른다면 오폐수가 새어 나온 건설의 문제가 됩니다. 저는 농민들이 제기한 공사에 대해 정확한 검증 작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부 농업용수 관로에서 생물학적산소 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기준치 이상 기록된 시험, 검사성적서 결과가 확인된 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오염 원인을 인근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 유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오폐수의 별도 처리 하수관로가 없어 농업용수 관로에 생활하수가 함께 흐르는 구조적인 문제는 북구청이 울산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후 설치해야 하는 근본적인 개선을 조속히 이끌어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못자리 피해로 농민들은 3,500원~3,700원 하는 모판을 7천판 이상 내다 버린 농민들은 막대한 시간, 비

용부담을 겪었습니다. 구청에서 육묘배양 금액을 일부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한 판당 2,000원의 자가 비용이 부담되었습니다.

집행부는 피해 농가의 육묘 훼손 정도, 못자리 크기, 육성상태 등 고려하여 보상 진행을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피해 농민이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또다시 지역주민과 행정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사지의 자세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울주군의 경우 못자리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발생시 영농자재지원비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못자리에 실패하는 농가, 이상기온, 뜬모 현상 등 발생 시 농가에서 모두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통해 보전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다시피 작금 북구의 농촌은 아주 어렵습니다.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농촌 인구의 고령화·값싼 수입품의 범람 등 우리 북구 농촌 발전을 가로막는 악재들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새로이 조성된 신시가지는 편리한 인프라와 정치인의 관심으로 사소한 민원까지 초스피드로 해결되지만 평생 땀 흘리며 노력한 우리의 농촌 현실은 어떠한지? 농민에게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중 하나가 폭염과의 싸움입니다. 농업은 날씨와 떼려

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산업인 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이상기상 상시화에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민들에게 폭염 때 행동요령과 가축 및 축사 관리요령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상시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농촌에는 고령화로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이들이 폭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행부는 마을 단위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뻔뻔한 집행부는 되지 마시다. 만약 건설의 문제에 따른 오페수가 모를 상하게 하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여러 변명보다 정중히 사과하고 보상을 실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못자리 피해 진행상황, 추진계획 등을 해당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에 풍년이 된 햅쌀로 밥 한 끼 대접하겠노라는 피해 농민의 우직한 약속을 우리는 응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밥 한 끼에 올 봄에 있었던 못자리 피해는, 막걸리 안주 삼아 해프닝이었노라 하며 웃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임채오 의원

> 발언일시 : 제182회 제1차 정례회(2019. 6. 24.)

> 발언요지 : 참여와 소통, 1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참여와 소통, 1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1997년 7월 15일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 이주언 의장, 백현조 부의장, 임채오 운영위원장 의장단을 구성하고 박상복의원, 정외경의원, 이정민의원,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 8명의 의원들로 제7대 북구의회가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우리 북구는 민생과 지역경제 등 산적한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구의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상생과 협치는 북구의회

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가장 큰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는 지역구 대표로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집행부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제17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6월 제182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기까지 9번의 회기를 거치며 예산안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

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추진했던 정책 내실을 다지고 지역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각종 결의안, 5분 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집행기관인 북구청과 정책 소통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180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을 시작으로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추진위원회'가 주민들 염원을 담은 약 7만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제7대에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주요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회와 집행부 협업으로 활력을 더했습니다. 울산 도로망에 동·서축을 추가하는 울산외곽순환도로건설 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하던 강동권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구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활발한 현장활동 및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강동초등학교 인근 풀베기작업, 자율방범활동, 재활용품리수거 등 현장체험 활동을 하였으며 강동문화센터, 달천철장, CCTV 통합관제센터, 정자활어직매장 등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통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현황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우리 구 현안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광거점 조성사업 및 지역자원개발 사업, 광주형 일자리 사업 및 자동차산업 지원, 아동 친화도시 등 선진 시설방문과 정책 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함께 일본 제철문화 선진지 견학을 통해 달천철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각인시키는 뜻깊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정재숙 문화재청장 울산방문 때 이동권구청장님이 직접 북구지역 문화사업 브리핑을 하였고 북구의회도 의원 8명이 전원 참석하여 우리 구 숙원인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신홍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불좌상과 복장유물을 시 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과 기박산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요청하였습니다.

영국의회는 1688년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회와 시민들은 '왕은 법 위에 선다'는 제임스 1세의 왕권신수설에 반대하였고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은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

제 개념으로 의회와 시민이 통치 권한을 가지게 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북구의회도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입니다.

낙후된 지역 도로·하천 정비, 재난안전,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수거 문제, 우수관 정비, 노후된 경로당과 아파트, 빈집 문제, 주차난 등 주민불편 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이 생활 곳곳에 미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도 21만 북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주민을 최고로 생각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업무 보고와 각종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포토의정



2019년 강동동 새해공감토크 (19.01.08)



2019년 효문동 새해공감토크 (19.01.08)



2019년 구정발전 기원 신년인사회 (19.01.09)



2019년 농소3동 새해공감토크 (19.01.10)



(사)자연보호중앙연맹 북구협의회 총회 (19.01.22)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정기총회 (19.01.23)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19.01.29)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19.01.29)



6.25참전유공자 울산북구지회 안보결의 대회 및 정기총회 (19.01.30)



정자활어식매장 준공식 (19.01.31)



공동주택 금연구역 현판식 (19.02.13)



2019년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19.02.19)



2019년 상반기 포토의정



2019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학교 수료식 (19.02.20)



북구청 체력단련실 및 다목적실 완공 (19.02.26)



삼일절 기념행사 (19.03.01)



북구 제3대학 제12기 입학식 (19.03.05)



청소년지도위원발대식 (19.03.15)



새봄일제대청소 (19.03.26)



클린환경 나눔장터 (19.03.30)



농소 6.25전몰군경합동위령제 (19.04.06)



농소2동 동천강 걷기대회 참여 (19.04.07)



181회 임시회 본회의 (19.04.15)



오치골공원 현장방문 (19.04.18)



안솔공원 리모델링 개장행사 (19.04.18)



2019년 상반기 포토의정



181회 임시회 4차예결위 (19.04.19)



구군의원 친선체육대회 (19.04.20)



기박산성 의병추모제 (19.04.2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교육 (19.04.23)



마을기업 씨엔트리 개소 (19.04.23)



제16회 효문동한마음체육대회 (19.04.28)



북구어린이큰잔치 (19.05.04)



북구청장배 체조경연 (19.05.11)



쇠부리축제 가마솥 비빔밥 배식 (19.05.12)



작은도서관운영자교육 개강식 (19.05.14)



13회 강동해변뽕돌마라톤 (19.05.19)



북구청장배 볼링대회 (19.05.26)



2019년 상반기 포토의정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19.05.28)



양정동민 한마음산행 체육대회 (19.06.02)



새마을운동 활력화다짐대회 (19.06.03)



호계문화체육센터 기공식 (19.06.04)



농소3동 자율방범대 회장 이취임식 (19.06.09)



키즈오토파크울산 준공식 (19.06.10)

2019 PHOTO Council



문화재청장 신흥사 방문 (19.06.14)



이주언 의장 의정봉사상 수상 (19.06.18)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개소식 (19.06.19)



사회보장협 복지정책세미나 (19.06.20)



풍수해 대비 양수기 가동훈련 (19.06.20)



북구새마을회 코스모스 꽃단지 조성 (19.06.21)



2019년 상반기 포토의정



182회 1차 정례회 신천공원 방문 (19.06.21)



우리동네골든벨 영화제 (19.06.22)



북구청장배축구대회 (19.06.23)



김용종과장 의회사무과 송별회 (19.06.24)



종달새공원 리모델링개장 (19.06.27)



북구청장배검도대회 (19.06.30)

| 복구의회 실시간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개요

-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의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주민들에게 복구의회 의사 진행과정을 생방송 및 녹화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 서비스 내용

- 복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생방송
- 복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녹화영상 영구 제공

○ 접속경로

복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kgu.ulsan.kr>) → 인터넷방송 메뉴 클릭 → 메인화면 ON-AIR 메뉴 클릭 → 해당일자 본회의의 목록 클릭 → 영상화면 내 재생버튼 누르고 시청

※ 꼭 찬 화면 시청 방법

- PC : 영상화면 하단의 전체화면 마크 클릭
- 모바일 : 스마트폰 가로로 회전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09:00 ~ 18:00(토, 공휴일 제외)
방 법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내 용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의회사무과(5층)에서 접수
 전화 : 241-8973 팩스 : 241-8979

농소1·강동·송정동	효문·양정·염포동	효문·양정·염포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2·농소3동	농소2·농소3동	농소2·농소3동	비례대표
의 장	부시장	운영위원장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이 주 언	백 현 조	임 채 오	박 상 복	정 외 경	이 정 민	임 수 필	이 진 복
사무실 : 241-8900 010-9173-4432	부시장실 : 241-8910 010-3801-8364	사무실 : 241-8920 010-4844-5405	사무실 : 241-8960 010-8630-4918	사무실 : 241-8950 010-6625-7725	사무실 : 241-8940 010-3123-3387	사무실 : 241-8930 010-6227-0049	사무실 : 241-8990 010-4228-898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

새시대를 열어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